

내가 쓴 것

나는 지금 나의 작업실에 앉아 있다. 나는 작업실이라는 말을 쓸 때면 어쩐지 조금 움츠러드는데 그건 누군가에게 나를 서평가라고 소개할 때와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은 감정이다. 나는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날 때까지 작업실을 종종 집이라고 불렀다. 나는 나의 작업실에서 별다른 작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나의 작업실에는 4,000권 내외의 책이 있는데 너무 많다는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적다는 사람도 있다. 나는 나의 책들이 전용면적 63제곱미터의 신혼집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책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나도 나의 책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작업실에 커피를 사다두는 걸 늘 잊는다. 나는 한여름에 마시는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한글 프로그램의 저장 버튼을 누르고 드롭박스 폴더에 저장된 문서가 드롭박스 서버와 동기화되기를 기다린다. 나는 이제야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자신이 바보 같지만 이제라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자신이 대견스럽다.

나는 지금 주문한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나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도 카드 결제 확인 메시지가 왔다는 걸 안다. 나는 2,500원이라는 금액이 적힌 메시지를 보며 새해 결심을 떠올린다. 나는 올해 한 권의 전작 단행본과 가계부를 쓰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아직 무엇도 쓰지는 않았다. 나는 내게 주어진 한 일간지의 지면을 일종의 가계부로 채우면 어떻게 생각했지만 역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나는 그 지면의 마감에 다시 돌아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진다. 그렇지만 문체는 지금이다. 바로 이 글이다. 청탁을 받을 때만 해도 그냥 내가 요즘 읽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상을 적당히 나열하면 되겠지 필요하면 인용을 할 수도 있겠지 가볍게 생각했는데 오늘 시청각 홈페이지에서 소설가 박솔뫼가 전에 비슷한 걸 썼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마음을 바꿨다. 나는 “나는”이라고 시작하는 문장들로 이루어진 에두아르 르베의 『자화상』과 모든 문단을 “나는 기억한다”라고 시작하는 조 브레이나드의 『I Remember』의 형식을 흉내 내서 “나는 지금”이라고 시작하는 문단으로 언제나 지금일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방금일 수밖에 없는 지금이라는 순간을 나라는 주어와 현재형의 문장으로 포착하는 척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일하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계속해서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만화를

배워서 네이버 웹툰에 도전한다거나? <쇼미더머니> 다음 시즌에 나가는 건? 차라리 죽어버리는 건 어때? 그래도 죽기 전에 술은 한 잔 해야지? 말 나온 김에 지금? 나는 그런 기분이 들 때면 언제나 그러는 것처럼 트위터를 켜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일별하는데... 잠깐, 내가 읽은 걸 쓸 수 없다면 내가 쓴 것들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모든 지금에 내가 썼던 것들을. 굳이 말하자면 지금이 남긴 얼룩을.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한다.

내가 쓴 것 (1)

내가 쓴 것 (2)

07/16 00:05 닭마을 일시불/28,000원

숙취
오전 10:54 - 2015년 7월 16일

07/16 11:33 (주)코리 일시불/6,500원

07/16 12:46 진우헤어 일시불/25,000원

07/16 18:08 도마소리 일시불/7,000원

일할 준비는 다 됐다
오후 1:34 - 2015년 7월 16일

하기 싫을 뿐이다
오후 1:34 - 2015년 7월 16일

술 마신 다음 날 진짜 싫다
오후 1:57 - 2015년 7월 16일

너무 졸립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나다
오후 2:24 - 2015년 7월 16일

숙취에서 벗어나기 위해 맥주 한 잔 시켰다
오후 6:19 - 2015년 7월 16일

07/16 19:57 북플러스 일시불/10,000원

지난 며칠 간 열심히 일했다
오전 8:12 - 2015년 7월 17일

진도는 나가지 않았다
오전 8:12 - 2015년 7월 17일

드롭박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미개하게 살았는지 깨달았다. 작업 중인 파일을 메일로 보내놓고 데스크탑 2대와 노트북을 오가느라 쌓였던

작업중(1) 작업중(1)(1) 작업중 (1)(1)(1).hwp 이제 안녕
오후 12:21 - 2015년 7월 17일

독서에 대한 나의 태도를 새삼 점검해보았다 잘못 되었다는
결론을 다시 확인하기까지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 이상이
걸리지는 않았다

오후 12:16 - 2015년 7월 17일

07/17 13:44 캣츠맘꼬 일시불/6,000원

07/17 13:47 비지에프 일시불/10,750원

녹취 푸느라 하루 분의 에너지를 다 썼다

오후 5:23 - 2015년 7월 17일

07/18 00:59 (주)바이 일시불/3,000원

지코&팔로알토 팀 가고 싶다

오전 2:54 - 2015년 7월 18일

쓸고 닦고 빨래 넣고 하니 하루가 다갔네, 라고 쓰려고
했는데 아직 5시도 안 됐군 일해야겠네

오후 4:41 - 2015년 7월 18일

강동호..

오전 12:56 - 2015년 7월 19일

나는 이제 짧은 책이 좋은 책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오전 8:11 - 2015년 7월 19일

07/19 13:14 (주)코리 일시불/6,000원

주말 동안 일을 못했다

오전 1:22 - 2015년 7월 20일

07/20 15:09 알라던커 일시불/50,000원

07/20 17:26 벚꽃사이 일시불/4,500원

07/20 22:23 베르에블 일시불/87,200원

07/21 03:55 택시KSC 일시불/7,000원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오후 12:20 - 2015년 7월 21일

07/21 14:47 (주)코리 일시불/11,700원

07/21 15:03 스타벅스 일시불/6,900원

배고파서 죄송합니다

오전 2:09 - 2015년 7월 22일

07/22 11:32 봄이네식 일시불/7,000원

점심 많이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오후 3:57 - 2015년 7월 22일

나는 이제 술 안 마신다
오후 6:02 - 2015년 7월 22일

오늘만 마시고
오후 6:02 - 2015년 7월 22일

『복종』 다 읽었다
오후 12:05 - 2015년 7월 23일

07/23 16:05 봉희설렁 일시불/10,000원

아무것도 하기 싫다가 갑자기 뭐든 다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되어서 조금 당황했다
오후 7:36 - 2015년 7월 23일

커피숍 가고 싶은데 노트북을 안 가져왔다
오후 7:51 - 2015년 7월 23일

07/23 20:09 비지에프 일시불/9,500원

07/23 20:14 커피베이 일시불/2,500원

결국 커피숍에 왔다
오후 8:21 - 2015년 7월 23일

필기구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500원 주고 BIC 볼펜
하나 샀는데 포장에 (주)모나미라고 써있어서 뭔가 속은
기분이었다
오후 8:22 - 2015년 7월 23일

07/23 21:06 씨유신사 일시불/4,300원

그림을 배워야 하나
오후 11:08 - 2015년 7월 23일

나는 지금 아내를 홀로 잠들게 내버려둔 채 거실의 컴퓨터 앞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린다. 나는 302,850원을 썼고 원고지 3.5매 분량의(실제로는 그것의 다섯
배쯤) 트윗을 썼으며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썼다. 나는 술을 마셨고 숙취에
시달렸으며 그런 상태로 작업실과 식당과 커피숍을 전전했다. 편의점에서는
담배와 숙취해소 음료를 샀다. 일을 하기 보다는 일하기 싫다는 생각을 했고 몇
권의 책을 읽었고 책을 읽기 싫다는 생각을 했으며 <쇼미더머니> 시즌 4를 봤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이 글을 썼다. 안방에서 아내의 알람이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 글의 원고료는 25만원이다.

나는 지금 적자 인생을 산다.